

2026년 04월 가정통신문

얼마전에도 꽃샘추위로 겨울인가 싶더니 목련과 개나리, 벚꽃이 활짝피어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풍센터 앞 산책로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어르신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집안의 묵은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롭게 단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모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4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을 기원해 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